



Since.1969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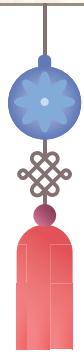
가톨릭 메디컬 타임스

No.2310 2025.1.1

창간 1969년 11월 14일
발행인 이화성 편집인 민창기
편집·기획 가톨릭중앙의료원 홍보팀
E-mail cmcpr@catholic.ac.kr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Tel 02)3147-9474 Fax 02)3147-953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하느님의 사랑으로 기대와 용기를 품고...

새롭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히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는 우리 앞에 펼쳐진 희망의 장으로, 기대를 품고 용기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올해도 우리를 지탱하고 이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나날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느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1역대 19, 13)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며 용기를 내야 함을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크고 작은 도전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결과는 하느님께 맡기며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두 발은 대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필리 1, 20)라는 말씀으로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확고한 기대를 품고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 다.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바오로 사도의 깊은 깨달음과 열망이 마음속 울림으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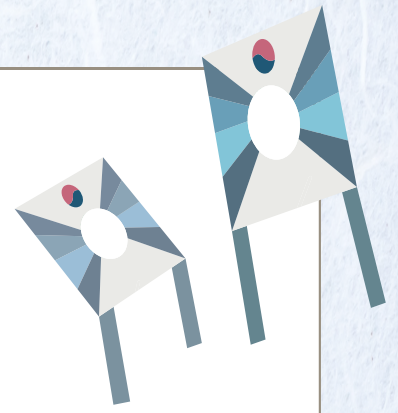
기대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향한 굳건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의 매 순간 우리 앞에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시리라는 기대를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삶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미 품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택한 길로 이끕니다. **용기는 그런 기대를 붙들고 실천하는 힘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 의지하며 앞으로 걸음을 내딛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장군 요압의 격려 말이 나 바오로 사도의 믿음과 소망에 대한 강렬한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살아갈 때, 그분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를 안겨 줄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기대와 용기를 품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는 한마디 전합니다. “절대 쫓지 마십시오.” 삶이 고단하고 앞날이 막막해도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총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담대히 용기를 내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느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이경상 바오로 주교



미래를 여는 도전, 함께하는 성장



2025년 을사년, 유연하고 영리한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교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전면 휴학은 모든 의료기관에게 그 무엇보다 큰 시련이었으며, 글로벌 경제의 중성장 기조 속에서 비뚤어진 사회, 경제적 요인도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여러 난관 속에서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좌절하지 않으며 용기를 내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환자들의 치료와 의료진의 진료 효율성을 위해서 8개 부속병원의 공고한 네트워크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협력하여,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진의 과중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우리 기관의 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난해 9월 발표된 환자경험평가 결과에서 우리는 타 대학병원들을 크게 앞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가톨릭메디컬엔젤스(CMA)를 중심으로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기관의 핵심가치인 생명존중의 실천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얻어진 모든 결실은 교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가능했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CMC)은 2025년에도 **‘미래를 여는 도전,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경영방침 하에 다음의 다짐들을 통해 전환점을 마련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생명존중과 윤리적 의료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기관의 뿌리인 성모병원이 의료선교의 사명 아래 1936년 개원할 당시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며,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의료 접근성 확대를 노력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CMC는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변화하는 최신 의료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더 큰 발전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의료 분야는 필연적으로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의료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이 시작되었으며, 전공의 수련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전문의 중심 의료기관으로의 재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여 교육과 진료 체계를 빠르게 갖추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계의 기술적인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의료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고유 경쟁력을 활용하여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CMC는 의학의 근본인 기초의학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메디컬 융·복합 허브인 ‘옴니버스 파크’를 건립하여, 기업과 연구소, 대학, 부속병원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국내 최초의 산·학·연·병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으며, 2023년 3월에는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기초의학 분야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현재 교수님들과 연구진들의 노력에 힘입어, 많은 국책과제를 수주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성과를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차세대 백신, 난치질환 및 암 치료 원천기술 등 분야에서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는 우리를 만들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채로운 직군과 배경을 가진 교직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교직원들이 개인 역량을 개발하고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직원 여러분!

2025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가장 큰 자산이며, 우리가 더욱 빛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핵심 선도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기대와 용기를 갖고 모두가 꿈꾸는 희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화성 교수





언제나 제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비추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의정사태는 우리 모두에 큰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대학도 참담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교육, 진료, 연구의 세 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고,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학생과 전공의들의 바람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현실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만들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역점사업이었던 '생명의 봉사자' 정신 확산을 위해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이 제정됐습니다. 휴학 이후 학생상담 확대와 다양한 봉사활동, 강연, 체육활동 등 비교과활동이 진행되어 그간 어려웠던 선·후배 동료, 학교와의 유대가 이어지며 비운 뒤에 땅이 굳듯이 다시 함께 의학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바탕이 서서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료 분야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거센 폭풍우가 치는 캄캄한 밤바다에서 항해하는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의과대학은 본연의 임무를 되새기며 교육, 진료, 연구에 최선을 다해 학생과 구성원 모두에게 **'언제나 흔들림 없이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학생적응지원 : 의정사태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학생, 전공의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동시에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가톨릭 정신 확산 : 필수의료인력 부족과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금이야말로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는 가톨릭 정신을 되새기고 외부적으로도 발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공동체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과대학장
정연준 교수



간호대학장
이선미 교수



변화와 함께 빛나는 간호대학, 함께하는 성장의 길

2025년을 맞이하여, 우리 간호대학은 더욱 성장된 미래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1일 자로 간호대학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잠재 능력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임을 확신합니다. 2025년에는 간호대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으로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 간호대학은 교육과정을 재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확장된 간호의 역할을 지혜롭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학부교육은 **디지털 헬스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날로그 간호 역량도 더욱 강조**할 예정입니다. 생명 존중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공감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4개 과정(Omnibus, Critical Care, Family & Community Care, Futuristic Integration Program)으로 재구성하고, 각 교육과정별로 책임교수 및 교육전담교수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일반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석·박사 통합 과정을 신설하여 연구 중심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임상간호대학원에서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더 많은 인재가 해당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간호대학 인증평가를 상시 관리하는 전문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간호대학은 미래의 간호를 이끌 인재 양성에 대한 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간호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마음이 파스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도전으로 한계를 넘고, 성장으로 미래를 열다

유난히 어려웠던 2024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과 정부 R&D 예산 삭감 등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기관의 모든 연구자 여러분께서 연구에 정진하실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상황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겨나가고자 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생명산업연구원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연구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내실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시키며 융합연구를 통한 연구 성과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임상연구비 수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정보공시에서는 전국 의과대학 중 전체 논문 수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의생명산업연구원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자본 확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첫째, 의료산업화를 선도하는 Key Player가 되겠습니다. 임상과 기초를 연결해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내·외부기관과의 협력 연구 촉진을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돕겠습니다.

둘째, 우리 기관의 강점을 활용해 변화를 이끄는 Trend Rider를 지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바이오'를 선정한 만큼 첨단 재생의료에 특화된 CMC 연구 환경을 바탕으로 K-헬스케어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셋째, 연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Head Quarter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연구자와 우수한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며 연구자들이 신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도 쉽지 않은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 갈등을 슬기롭게 이겨내 온 CMC의 저력은 큰 용기를 갖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을 때다'라는 말처럼 '지금 이 연구하기 가장 좋을 때다'라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우리에게 한계란 없을 것이며 모두가 결집할 좋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5년에도 모든 연구자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생명산업연구원장
조석구 교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도전,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정보융합진흥원장
김대진 교수

사랑하는 CMC 교직원 여러분! 2025년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은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의 해였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 본질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성인식 EMR 기록 시스템의 8개 기관 확대 도입, 데이터 품질 관리와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강화, IT 인프라 개선과 보안 강화 등은 모두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애프터케어 플랫폼 추진과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실증센터 신설은 우리가 지향하는 환자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보융합진흥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을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 활용의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애프터케어 플랫폼의 성공적인 오픈과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개발**로 환자 주도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 심의 프로세스 일원화**를 추진하여 연구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2027년 대한민국에서 열릴 World Youth Day(WYD)를 대비해 원격 진료와 디지털 건강관리를 위한 IT 서비스 기획 등 준비 작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가톨릭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은 우리가 의료 기술 혁신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 변함없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에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은 정보융합진흥원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가 이루는 모든 성과는 여러분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께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성모병원장
윤승규 교수



변화의 파도를 향해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병원

존경하는 서울성모병원 교직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급변했던 의료 환경 속에서도 우리 병원이 환자들을 돌보는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한 해의 열정과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질평가 10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고, 환자경험평가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1위를 기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교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환자에 대한 사랑 덕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불확실성이 아직도 상당한 외부 환경을 감안하면, **올해는 의료계 전반이 변화와 혁신을 강하게 요구받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편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일반 병상의 감소와 함께 중증·희귀난치 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해야 하며, 현재의 전공의 공백에 대응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부 환경과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외부의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외부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받는 한 해가 되겠지만, '기대와 용기'에 이은 '도전과 성장'이라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경영방침처럼 이 과정이 우리 병원과 교직원 모두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라고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정책 변화가 있더라도 환자 곁을 지키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하는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수많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환자 곁에서 생명을 지키는 역할에 늘 최선을 다해오셨던 우리의 선배 교직원들처럼, 새해에도 하나 된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성모병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모든 교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기와 도전이 이끄는 성장

존경하는 여의도성모병원 교직원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병원은 내외부의 도전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림프종센터 CAR-T 치료 본격 활성화, 로봇수술 실적 증가와 안과병원 신의료기술 개발 등 전문 진료 역량 강화, 겨자씨키움센터 데모데이 2년 연속 수상, 4차 환자 경험평가 1등급 획득이라는 결과는 모두가 함께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2025년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비전을 실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신 방사선 암 치료기를 도입하고, 로봇수술기와 안과 수술 현미경을 추가로 도입해 최첨단 의료 기술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진료 영역을 개척하고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며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경영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입니다. 병상 축소에 따른 인력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전문 진료 지원 간호사의 인적 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병원의 모든 영역에서 영성구현을 실현하겠습니다. 영성센터 운영 활성화로 가톨릭 정신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사회공헌활동 확장, 영성 기반 ESG 활동 지속 등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원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 병원은 지금껏 수많은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성장해 왔습니다. 2025년은 더욱 큰 용기와 도전적인 활동으로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의도성모병원장
윤승규 교수



의정부성모병원장
한창희 교수

고난을 기회로, 환자와 교직원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

친애하는 의정부성모병원 교직원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은 기쁨과 희망 가득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경쟁 병원의 성장 속에서 분전한 한 해였던 만큼, 2025년은 우리 병원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환위리(以患爲利)'하여 예기치 않은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위기 대응 및 극복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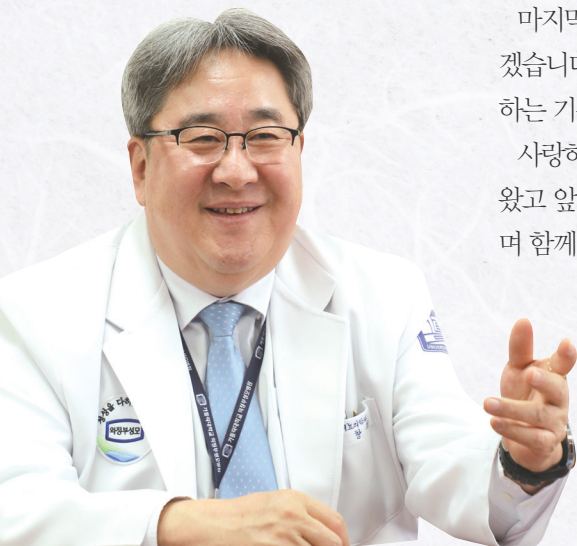
먼저 **경영 내실화와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 사회의 주요 의료기관으로서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의료안전망 구축 및 의료 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양성 가치를 바탕으로 한 조직 활성화 활동 등 함께 교류하고 융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쾌적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동력 확충을 목표로 **ESG 기반의 사회공헌활동과 행복 경영**을 지속하며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병원 환경 개선으로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계속하여 지역의료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긍정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저는 의정부성모병원과 함께한 지난 30년 동안 누구보다 가까이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지켜봐 왔고 앞으로도 치유자로서의 영성 구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함께 걸어 나아가주시기를, 또한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부천성모병원을 만듭시다!

사랑하는 부천성모병원 가족 여러분, 새로운 기대와 용기 속에 2025년의 문을 열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부천성모병원은 어려운 고비를 잘 견뎌 냈고 환자경험평가 전국 7위, 경기도 연속 1위라는 자랑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 어려움이 많으리라 예상되지만 미래를 여는 '도전'과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조직문화를 통해 '최상의 의료로 사람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가톨릭 정신에 기반한 우리 부천성모병원은 단순히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가톨릭 정신을 체현하는데 주안하려 합니다.

또한 인적자원 활용 효율화를 통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서비스 안정화에 힘쓰려 합니다. 이에 중환자전담 전문의 확보, PA간호사 활용을 통해 **원활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중증 음압격리병상 추가 구축,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전달체계 네트워크 강화 등 정부의 다양한 신규 정책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만족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빅데이터 구축, 유전자 패널 검사, AI 기반 혁신 의료장비 도입 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기초와 임상을 연계한 연구로 **의료 가치 창출**도 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함께하는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역량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구성원들의 마음돌봄 등을 통해 교직원의 영적 성장을 꾀하며 **행복한 부천성모병원을** 만들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과 함께라면 부천성모병원이 도전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톨릭 정신의 빛을 널리 퍼뜨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성모병원장
김희열 교수





수도권 서북부 대표 병원으로 도약하는 은평성모병원

존경하는 은평성모병원 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주신 교직원분들의 노력 덕분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거두었습니다. 개원 5년 만에 로봇수술 3,000례, 최소침습 단일공 흉강경 수술 1,000례, 심장 수술 500례, 신장이식 수술 100례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서북부 거점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저소득 취약계층 환자 지원을 비롯한 사회공헌에 활발히 참여하며 은평구청으로부터 '아름다운 기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개원 6년 차를 맞이하는 우리 은평성모병원은 위기를 기회로 의료계에 닥친 변화의 물결을 극복하고, 도전의 목표를 넘어 도약으로 **‘수도권 서북부 중증·응급질환의 최종 치료 병원’**으로 자리 잡겠습니다.

우선, 진료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증·응급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식, 심장, 암과 같은 중증 환자들에게 One-Stop/Fast Track 진료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로봇수술 및 최첨단 암 치료 장비 등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 진단보조기기, 의료용 로봇 등 **신의료기술을 발 빠르게 도입**하여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효과적인 환자 중심 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One-Team 조직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직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역량 강화를 도와 병원과 구성원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은평성모병원은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일상 속에서 더욱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교직원 개인의 영적 성장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의료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게 내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은평성모병원장
배시현 교수



2025년 개원 70주년...

‘인천성모병원만의 특별한 가치’ 실천하는 해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주님의 축복 속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4년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대립 속에서 의료 인력 문제와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등 국내 의료 환경의 구조적 과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인천성모병원은 인천지역 최초 로봇수술 3,000례 달성을 비롯해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TAVI) 100례, 뇌혈관수술 5,000례, 치매관리사업 평가 전국 1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연평도 1심 1주치 병원 의료봉사 등 다양한 나눔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 2025년, 우리 인천성모병원은 개원 70주년을 맞습니다. 1955년 개원 이래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성장해 온 우리는 2025년에도 ‘인천성모병원만의 특별한 가치’를 실천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인천성모병원은 올해도 중장기 경영방침인 **‘인재경영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BT : Better Tomorrow)’**를 목표로 기본경영, 공감경영, 인재경영, 행복경영 부분별로 중점전략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먼저 **기본경영**으로 환자 중심 문화를 정착하고, 핵심 분야 발굴과 성장·발전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환자 중심의 인천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감경영**을 통해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우리는 하나’라는 인천성모인(人)의 공동체 정신을 내재화하고, 가톨릭 영성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및 상호 존중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재경영**은 변화와 혁신, 도전으로 새로운 인재상과 핵심가치를 구현하고, ‘1인(人) 1강점(強點)’을 개발해 우리 교직원들의 독보적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경영**으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직원이 행복한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인천성모병원장
홍승모 몬시뇰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도전과 실행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과 희망으로 한 해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교직원 모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현재 보건의료계는 의정 갈등과 의료개혁 추진 등 엄청난 파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성빈센트병원은 병원의 발전과 성장에 큰 변곡점이 될 2025년을 본연의 가치와 역할 수행에 힘을 쏟으며 미래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행하는 한 해로 보내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통해 진료 역량 및 협력 체계, 수련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발전 동력으로 삼으며, 제6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대비한 지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경영 전략으로 수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화, 고객 경험 개선, 브랜드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미래 경영 전략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올해 ESG 경영을 본격 추진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 취약 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벽 없는 병원(Barrier-Free Hospital)’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료 수어 통역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회적 약자 친화적인 건강검진센터로의 변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섯째, 성빈센트병원만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하는 영성 구현 실현을 위해 전 직원 영성 교육을 지속하고, 후원회 사무국 기능을 강화해 사회공헌활동의 보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성빈센트병원이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대내외 환경 변화와 그 흐름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유연한 사고로 적극적인 대응과 실행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경기남부지역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미래를 위한 도전에 기꺼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빈센트병원장
임정수 수녀



병원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병원

사랑하는 대전성모병원 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예로부터 지혜롭고 신중한 동물로 여겨졌고, 허물을 벗기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도 새로운 변화를 통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헌신과 노고로 함께 노력해 준 우리 교직원 한분 한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도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용기를 갖고 ‘병원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병원’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함께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중심 병원’이 되고자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이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환자를 존중하고 환대할 수 있도록 교직원 교육 강화,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진 영입 및 최신 의료 장비 도입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대전성모병원 가족 모두가 ‘공동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이라는 조직체는 개인과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 속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집니다. 서로의 신뢰와 연대 속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병원의 존재 이유인 지역 사회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복음적 사랑’을 실천해 ‘병원 그 이상의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굽힌 무릎을 펴고 힘을 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갑시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대전성모병원 가족 모든 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전성모병원장
강전용 신부



고객 중심 가치를 실현하며 치유의 손길을 전합니다

2024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환자경험조사 우수기관 시상식 개최
서울성모 대상·부천성모 향상 우수기관 수상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최근 법인 상임이사인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교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환자경험조사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는 교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처음 시작되어 13년째를 맞이했다. 이후 그 의미를 한층 더하기 위해 향상 우수기관과 개인부문 신설, 대상 트로피 수여 등을 통해 시상식을 발전시켜 왔다.

2024년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향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던 서울성모병원이 '대상' 기관에 선정되어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과 트로피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향상 우수기관'에는 부천성모병원이 선정되어 상금 300만 원과 상패를 받았다. 이 외에도 외래, 입원 부문별 '우수부서' 13곳과 향상률이 가장 높은 '향상부서' 6곳이 선정되어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었다. 각 기관의 추천으로 선정된 18명의 개인 부문 '우수 교직원'에게는 상장 및 부상과 함께 새로이 제작한 순금 카드 상패를 전달해 수상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상 주교는 격려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구원의 빛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로 환자들에 대한 치유의 손길을 계속 이어 나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관의 모든 부서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서로를 돌보는 활력 있는 생명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했다.

한편, 시상 후에는 환자 경험 향상을 위한 기관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대상 수상 기관인 서울성모 병원은 환자 경험 향상을 위한 노력을 '발견-공유-변화' 3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 부서

구분	우수부서상		향상부서상
	외래	입원	
서울성모	혈액내과	192 Unit/121 Unit	응급의료센터
여의도성모	혈액내과	12층Unit	응급의료센터
의정부성모	외과	6층남Unit	분만실Unit
부천성모	재활의학과	나06병동Unit	응급의료센터
은평성모	방사선종양학과	152Unit	방사선종양학팀
성빈센트	방사선종양학과	72병동	응급의료센터

수상 교직원

구분	교원	직원	
서울성모	홍성후(비뇨의학과)	강의정(101Unit)	이선영(치과팀)
여의도성모	전영우(혈액내과)	안수진(10층Unit)	박소현(7층서Unit)
의정부성모	서보미(성형외과)	강술(외상병동Unit)	강종모(영양팀)
부천성모	김환수(소아청소년과)	김아름(나06병동Unit)	박선유(전문진료지원팀)
은평성모	박천수(외과)	라채련(121Unit)	강다희(조제팀)
성빈센트	전예원(외과)	최정인(내과계 중환자실)	김해옥(41병동)

2025년 CMC 핵심가치실천공모전

2024.12.16(월) ~ 2025.01.24(금)

• 핵심가치실천 공모전 • 자선활동 수혜자 수기 공모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참여를 원하시면
QR코드를
촬영해주세요!



뇌사 장기기증자예우를 위한 세리머니 네이밍 공모전 결과 발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최근 개최한 '뇌사 장기기증자 예우를 위한 세리머니 네이밍 공모전'에서 2차 심사 끝에 수상자 4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생명 나눔이라는 숭고한 여정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259명의 지원자가 기증자의 숭고한 희생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이름들을 담아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장기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소중한 연결고리를 인식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 상 | 나눔사랑길(부천성모 강소희)
우수상 | 사랑의 이름길(서울성모 이지원)
장려상 | 아름다운 동행(부천성모 황재문),
새숨나눔길(부천성모 김홍엽)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연속 1등급 행진

우울증 외래 및 관상동맥우회술 치료 우수성 입증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들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및 '제9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등급 쾌거를 연이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자랑하고 있다.

제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에서는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이 1등급 행진을 이으며 우울증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울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 및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평가척도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울증 외래 진료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 환자를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첫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등의 지표로 평가했다.

또한 제9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이 1등급을 받으며 심혈관질환에 대한 우수한 치료 역량을 인정받았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질 경우 대체 혈관으로 우회로를 만들어 심장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고난도 심혈관 수술이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92곳을 대상으로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률 ▲퇴원 시 항혈소판제 처방률 ▲수술 후 출혈이나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율 ▲수술 후 입원 일수 등 총 7개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진행됐다.



위암 진행의 핵심 세포 상호작용 최초 발굴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김태민 교수팀, 위암 진행 과정 규명 및 치료제 개발 가능성 제시



김태민(왼쪽) · 이성학 교수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인공지능 뇌과학사업단장 김태민 교수(교신저자, 의료정보학교실), 이성학 교수(제1저자, 서울성모병원 병리과)팀이 아주대학교 외과학교실 허훈 교수(교신저자), 이다경 박사후연구원(제2저자)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최신 공간 전사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위암 진행과 관련된 세포 간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암 진단 및 치료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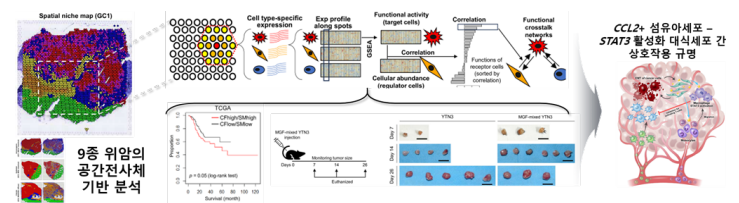
연구팀은 9개의 위암 조직을 위암 조직 내 세포군의 비율

에 따라 면역원성 위암, 상피성 위암, 기질성 위암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각각의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포별 전사체 변화와 기능적 변화를 추론했다. 그 결과, 암 조직의 미세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종류의 세포를 찾아냈다. 바로 CCL2 단백질을 만드는 섬유아세포와 STAT3 단백질이 활성화된 대식세포다.

공간전사체 기술은 세포의 유전자 발현 정보를 조직 내 공간적 위치와 함께 분석하는 첨단 생명공학 기법으로 암과 같은 복잡한 질환에서 세포 간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기질세포와 면역세포 간 상호작용을 이러한 전사체 동역학 분석으로 규명한 결과, CCL2 발현 섬유아세포와 STAT3 활성화 대식세포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

에 따라 면역원성 위암, 상피성 위암, 기질성 위암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각각의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포별 전사체 변화와 기능적 변화를 추론했다. 그 결과, 암 조직의 미세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종류의 세포를 찾아냈다. 바로 CCL2 단백질을 만드는 섬유아세포와 STAT3 단백질이 활성화된 대식세포다.

공간전사체 기술은 세포의 유전자 발현 정보를 조직 내 공간적 위치와 함께 분석하는 첨단 생명공학 기법으로 암과 같은 복잡한 질환에서 세포 간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기질세포와 면역세포 간 상호작용을 이러한 전사체 동역학 분석으로 규명한 결과, CCL2 발현 섬유아세포와 STAT3 활성화 대식세포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



인했고 이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위암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또 이들의 상호작용이 위암 환자의 치료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냈으며 위암 실험실 모델 및 생쥐 모델을 통해서도 이를 증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소화기학 분야 저명한 국제 학술지 <Gut>(IF=23.1)지에 게재됐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여의도
성모

보행보조 재활로봇 EA2 PRO 운영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최근 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간병로봇 보급사업'에 선정, '보행보조 재활로봇 EA2 PRO'를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

보행보조 재활로봇은 신경학적 손상 환자들의 보행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졸중, 척수 손상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안전한 보행 훈련 환경을 제공하며, 신경 가소성을 자극하여 운동 능력 회복을 촉진한다. 또한, 고령 환자들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간병인과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병원은 재활로봇 치료가 가진 잠재력을 병원 내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재가 환경으로 확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재활로봇의 임상적 활용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보행보조 훈련 모델을 개발하여 재활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
성모

지역 협력해 중증 환자 골든타임 치료

지난 12월 4일, 추락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SDH)과 지주막하 출혈(SAH)을 동반한 중증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인천소방 헬기를 통해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송은 인천소방 헬기가 담당했으며,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이 탑승해 환자 상태를 안정시켰다.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홍태화 교수는 현장의 거리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헬기 이송을 즉각 제안하며, 최적의 치료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닥터헬기 야간 운항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도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가천대 길병원, 소방당국, 의정부성모병원 간 긴밀한 협력으로 인천소방 헬기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사수에 노력했다.

환자는 내원 직후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외상성 뇌출혈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환자 생존과 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사례는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과 의료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히, 의정부성모병원은 수도권 북부 지역을 지키는 권역응급·외상센터로서,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홍태화 교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계성초등학교 첫영성체 어린이들, 여의도성모병원 환아 위한 기부금 전달



2024년 계성초등학교 첫영성체 어린이들이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을 방문해 첫영성체 예물과 부모님들의 후원금을 포함한 일백칠십만원(₩1,701,000)을 취약계층 환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계성초등학교 첫영성체 어린이들 20명은 '가난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을 담아 예물을 봉헌했고, 여러 단체 중에서 특별히 여의도성모병원의 환아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아 이날 직접 병원을 찾아 기부금을 건넸다. 병원은 기부에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고자 첫영성체 어린이들을 위한 묵주와 쿠키세트를 선물로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여의도성모병원의 이주 환아 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덕을 실천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주)피엔엘인터내셔널, 생명존중기금 1억 원 기부



국제 물류 전문 기업인 (주)피엔엘인터내셔널이 최근 생명존중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이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12월 13일 이화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주관으로 (주)피엔엘인터내셔널의 이희관 부사장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희관 부사장은 생명윤리학을 배웠던 시간을 회상하며, 행복의 전제 조건은 명성과 부 같은 외적인 요소가 아닌 '덕(德)'을 기르고 실천하는 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전달식 중 이희관 부사장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생명존중 정신과 사랑의 실천에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며 "이 나눔이 더 큰 사랑과 존중의 문화로 이어져,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할머니와 함께 전하는 희망과 기쁨

익명의 천주교 후원자(세례명: 소안나)가 작고(作故) 전 손자에게 기부의 뜻을 남기고 실천하며 최근 소아환자를 위한 불우환우돕기 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소안나 후원자는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요양병원에서 오랜 기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된 고인은 몸이 아프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에 "힘든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지만 큰 희망을 주고 싶다."는 뜻을 손자에게 전하며 기부를 결심했다.

고인의 손자이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동문(62회)인 이동현 님은 이후 할머니의 뜻을 이어 받아 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을 방문하여 기부했다. 이동현 기부자는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사회에 기부하는 뜻에 동참하고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며 할머니의 뜻을 대신 전했다. 이에 후원회사무국은 기부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 환자들의 치료를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2024년 11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 익 명 30,000원 • 생명존중기금(의료원위임) 익 명1 100,000원 익 명2 30,000,000원 익 명3 20,000,000원 (주)피엔엘인터내셔널 100,000,000원 이안준 100,000원 평화이즈 1,000,000원 •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소아) 김군태 3,000,000원 소복화, 이동현 100,000,000원 최지영 100,000,000원			
대학(성의교정) • 옴니버스 파크 차용기 500,000원 (주)더블유엔에이치 1,000,000원 김영주 800,000원 • 의생명과학교실 발전기금 차용기 4,500,000원 • 일반대학원 장학금 (재)추강문화재단 9,000,000원 • 추강문화재단 장학금(의대/간대/대학원) (재)추강문화재단 3,000,000원 • 치과학교실 발전기금 김영주 7,200,000원			
서울성모병원 • 병원발전기금(위임) 차용기 5,000,000원 • 성모자선회 익 명 10,000 원 고유미 2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 병원발전기금(위임) 김귀중 5,000,000원 김규희 8,000,000원 김미경 1,000,000원 나호훈 50,000원 성모보청기 2,000,000원 이현주 5,000,000원 정동석 10,000,000원 조현기 1,000,000원 • 성모자선회 여의도성모병원 저금통 김현아 10,000원 유원근 5,000원 정성진 1,00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고다은 10,000,000원 윤영녀 10,000,000원 이주희 10,000,000원 최영순 10,000,000원 • 소아청소년 계성초등학교 첫영성체 어린이 봉헌금 1,701,000원			
의정부성모병원 • 병원발전기금(위임) 주식회사 아크미디어 2,500,000원 • 성모자선회 익 명1 300,000원 익 명2 285,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탁정자 500,000원			
부천성모병원 • 성가자선회 따뜻한 겨울나기 성가사랑나눔 10,233,000원 PLUS 나눔 릴레이 230명 어쩌다 한순간 5명 1,000,000원 박다미 5,000원 부천성모병원 산우회 70,000원 부천성모병원 모금함 259,910원 송명숙 20,000원 유현주 10,000,000원 이명진 60,000원 이민희 50,000원			
이해남 200,000원 주윤희 5,000원 최미경 20,000원 표성운 56,550원 홍의준 10,000원 황쌍복 10,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김현희 500,000원			
은평성모병원 • 병원발전기금(위임) 이현식 5,000,000원 재단법인 천주교서울수도원유지재단 50,000,000원 • 은평성모자선회 따뜻한 온기나눔 모금 이벤트 379명 7,604,000원 강다희 5,000원 류지현 10,000원 최종훈 100,000원 김수진 50,000원 김재희 10,000원 노미선 500,000원 이숙희 50,000원 최세은 50,000원 허선미 50,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익 명 1,000,000원 권인우 200,000원 김태균 30,000원 김태림 60,000원 송현주 5,000원 황수정 100,000원 • 은평성모병원 자선기금 변지선 20,000원			



"서울성모병원과 함께한 희망의 여정,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성모병원은 여러분과 함께하며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감동적인 순간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25년에도 서울성모병원은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며,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더 건강한 내일을 선사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국내 첫 소장이식 생존 20년 역사
20년 전 수술을 집도한 이명덕 명예교수와 환자 이 모씨



소외계층 1,000명 건강 지켜
온드림 자선건강검진



건강히 퇴원한 이른둥이 예찬이
512g 초극소미숙아, 5개월 만에 3.68kg되어 집으로



암 경험자와 함께하는 전시회 개최



다섯쌍둥이 '팡팡레이저' 분만



고령자·베트남공동체 대상 의료봉사



뇌출혈 응급 혈액암 환자 생명 구해



알뜰 나눔 바자회 '다잇다' 개최



건강히 태어난 아기 윌리엄
주한미군병원 응급 의뢰된 고위험 산모, 서울성모병원
에서 정상 분만 성공



윤승규 병원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수능 무사히 치른 혈액암 진단받은 수험생

당신의 건강 파트너!

여의도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 1661-7575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sungmo.or.kr

최신 高精밀 방사선 암 치료기

TRUEBEAM



2025년
상반기
본격 가동

▶ Youtube meet the Yeouido St. Mary's Hospital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ujb.or.kr

지역 사회와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성모자선회 지역나눔행사 개최



2012년부터 지역 소외계층 위해 매년 자선행사 개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2025년에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천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ep.or.kr

2025

위기를 기회로, 더 높이 도약하는 **은평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